인 사 말

이른 새벽, 새로운 길을 떠나는 마음으로, '자성과 쇄신 결사'를 시작한 지 벌써 1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한국 불교의 자립과 자존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우리 내부의 성찰을 통해 스스로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쇄신해 나가자는 것이 결사 발원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동안 결사가 지지부진하다, 성과가 무엇이냐는 비판과 우려의 소리가 들려온 것은 손에 잡혀지는 구체적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엄동의 추위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 운영위원 여러분께서도 결사 추진에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한편,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성과 쇄신 결사는, 자성의 토대 위해 쇄신의 탑을 쌓는 일입니다. 뼛속까지 사무치는 추위를 견뎌내는 자성의 시간이 흘러야, 코끝을 찌르는 매화향기를 중생세간에 피워내는 '쇄신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통인 대중공사를 통해 자성의 기초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출가자와 재가자, 스스로의 입과 가슴에서 앞으로 바꾸어가야 할 성찰의 과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발원은 중앙 종무기관으로터 시작되어 직영, 직할 사찰 들을 거쳐, 교구본사와 신도회에 이르기까지 우리 종단 곳곳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담보는 1700년 한국불교의 자정능력입니다. 흐르는 물처럼, 흐르는 바람처럼, 끊어질 듯 이어지면서, 고이거나 멈추지 않음으로써 스스로를 맑게 지켜내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한달 남짓이면 1주년을 맞는 자성과 쇄신 결사는 이제 준비기간을 거쳐 실행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결사 과정에서 토론과 논쟁, 의견의 충돌, 강온의 대립 등 온갖 어렵고 힘든 시간이 닥쳐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야 하며, 넘어 설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

습니다.

우리의 목표인 뭇 생명의 안락과 행복을 위하고, 불교적 가치의 사회적 실현을 위하며, 불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자성과 쇄신 결사가 무량한 공덕으로 회향할 수 있도록, 언제나처럼 운영위원님의 애정 어린 격려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서도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불기2555년 12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